



왜, 갈릴리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소망의 축제가 있다. 성탄절 보다 부활절일 것이다. 왜냐면, 부활이 없다면 성탄도 거짓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거짓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승천도 거짓이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다 거짓말이 된다. 성경은 시작 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통해

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주시며 그 부활을 통하여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마28:10) 하시며 그 여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다. 주님은 왜, 부활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소를 갈릴리로 하셨을까? 아마 그 곳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며, 그 주님께로 부터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며,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

리고 포기하고도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하자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첫 사랑을 회복하여 그 첫 사랑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우리 누구라도 각자의 그 갈릴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생활고 속에서 물질을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서원하며 간구했던, 아니면 병든 몸으로 살려만 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겠다고 했던,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그 자만만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때, 바로 그 자리 각자의 그 갈릴리가 있지 않을까? 농치고 살았거나 잊고 살았던 그 갈릴

리의 첫 사랑.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에 가슴설리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눈물을 흘렸던, 예배가 감동이고 축제였던,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힘든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했던, 용서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다 용서가 되던 바로 그 때 그 자리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부활절에는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신바람나는 천국나그네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 (지저스타임즈 사장)**

다면 정말 허망할 겁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없고 한숨과 절망이며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비참해지고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는 꿈이며 희망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이 실재가 되어 교회와 가정마다 곳곳마다 살아나는 웨신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나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제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침내 나의 이름 불려지고 우리 모두는 잠을 자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영광의 하늘시민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행함의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장웨신 총회장 김현수 목사**

웨신총회 부활절 축하메시지



2023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웨신가족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총명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4월의 봄에 부활의 소식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며 마음껏 축하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목회자로서 살 가치를 느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승리자가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한방에 날려 버리셨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사랑의쌀 위원회, 한기총서 조찬기도회 가져



사랑의쌀나누기운동위원회(이하 사랑의 쌀)는 지난 1일(토) 오전 7시 30분 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조찬기도회를 가지고 사랑의 쌀 국내분배를 시작했다. 위원장 정영숙 권사의 인도로 드러진 조찬기도회에서 김사철 장로가 기도하고, 이숙경 권사가 찬양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사사기 7장 7절을 본문으로 "300 용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싸움에서 승리한 이 유가 군대의 크기에 있지 않았다. 두렵고 떠는 수많은 자를 돌려보내고, 믿음의 300 용사를 남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역사이다"며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사랑의 쌀을 나누는데 있어서 재정과 물질은 미디안 군대와 같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나 300이라는 적은 수로도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용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넉넉히 이기고,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며,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부협 부활절메시지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존귀한 하나님께서 친히 비하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전파 하시다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지만, 우리 주님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ZOE)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두가지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생각·가치·언어·삶·행동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미래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요 11:25-26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부활과 궁극적으로 성스러운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믿습니다.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부활 소망의 신앙과 삶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언론보충사업의회총재
허창범 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부활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주일에배 / 흥성성전 - 내포성전 - 예배시간 - 동일함

주일 낮 예배 안내

흥성성전	흥성제일교회
내포성전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행4:33)

담임목사 오종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충남 홍성읍 흥복읍 자경로 51(전화: 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fe.daum.net/ssaxp

흥성성전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Tel : 634-0441

한교연. <2023년 부활절 메시지> 모두 하나된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부활절이 되기를



이역주 목사
(한교연 대표)

2023년 부활절이 찾아왔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정표로 나타난 것이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을 성취한 것이고, 또 장차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크기만 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바란다. 결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굳게 믿기를 소망한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죽음의 무덤처럼 어두운 곳들이 많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역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 유족들은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 무거운 마음인데, 부활의 빛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느닷없는 역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백신 부작용 때문에 갑자기 유명(幽明)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 바란다.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부활의 환한 빛이 비추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난으로 인한 굶

주림, 종교적인 이유로 괴로움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살인과 강간으로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 소망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또 복讎의 우리 국민 2,500만 명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오직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용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피폐한 삶은 내팽개친 채 전쟁광으로 변해버린 김정은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부활의 서광(曙光)이 비쳐지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다. 이 부활의 은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전파되기를 바란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2023년 한국교회도 수년 만에 함께 모여서 대대적인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린다. 정말로 감격스런 일이다. 그동안 수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조차 숨어서 드린 것과 같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유통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부활절 예배는 각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고 풍성하게 드러져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연합 단체들이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사분오열(四分五裂)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기왕이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의 몸이 하나요, 부활이 하나인데, 왜 각자의 이름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가? 과거 한국교회는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하나된 모습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주님의 몸을 찢듯이, 5-6개 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따로 따로 모인다고 하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부활절 예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연합 단체들이 한 이름으로 뭉쳐서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최의 이름으로도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되기를 원하는데, 연합단체들이 각자의 명예와 편리성으로 나누어진 모습이라면 부활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

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된 모습이 된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에도 부활의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

간곡히 한국교회에 요청하니,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라. 형식과 이름, 명분과 체면을 뛰어넘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라고 기도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의 모습이 될 것이며,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조영만 목사
(인천선교회/본사 부사장)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하심 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죽음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고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성령님의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한 사역을 통해 거듭남과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주심으로 주

님이 신자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많은 아들이 되어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영광과 천년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

한기총. <2023년 부활절 메시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먹이고 입히며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할렐루야!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복된 소식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넘쳐 나고,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쟁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원망과 배반으로 시작된 죽임(殺)의 자리였지만, 그 모든 죄악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스스로

죽음(死)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약해 보입니다.

어둠으로 떠난 제자를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모두 떠나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 있고, 피해갈 수도 있음에도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찬의 음식과 같이 주님의 핏감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단 사이비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았습

니다. 그것은 사랑을 이용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거짓되며,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 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됩시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불안해하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김수정 전도사
(작은구름의집선교회)

마라나타!! 현 시대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너무도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니엘 선지자께서는 다니엘 12:4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간들이 모방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었는데 인구 수정하여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이제는 AI가 사람들을 능가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므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여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시대에 당면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기 보다 과학을 지식을 더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4:7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에 선정된 장소에 아수아의 피로 구원받은 몸으로 나 자신이 산 예물이 되어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아가 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가오는데 부활의 날을 개신교는 춘분이 지나고 음력 만월(15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교부들이 정하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배합니다. 지금 이단들도 유월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시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의 저주와 범법(알고 짓는 죄)

죄들(율례, 규례, 법도) 불법(모르고 짓는 죄)을 위해 십자가에서 양을 갚는 그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까!!

오늘은 유월절 옛새 전날입니다. (요 12:1~11) 해가 지면서 낮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기뻐하며 그 누이들이 만찬을 배운 날입니다. 이날에 나사로(나자로스, Nazarus)의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아수아)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ointment)를 발에 부어 드립니다. 마리아는 아수아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였다가 부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등(대언의 말씀)과 기름(뜻은 비성령) 준비하였는지? 신앙이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깨어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깊이 하나님앞에 서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축 2023년 부활절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점,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 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아직도 장례비용 선불로 내고 계십니까? 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

01. 단순장례식 1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장례식 185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장례식 2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
- ☐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1644-2542/010-3788-1130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몽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생활침구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업무 협약체결식"MOU 가져



교육부 허가 공인법인/한국보건교육원 대표 송영운(우슬초글로벌선교회), K-발효를 세계로! 주)지엔에이치바이오 회장 김해성, 대표이사 정해린, 씨엘엘건강카페 대표 이승용 등 3사 대표와 관계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각사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진 후 3사 대표의 공동협력업무를 협약하는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의 공동업무 진행을 위하여 씨엘엘건강카페 이승용 대표 사회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먼저 한국보건교육원 송영운 대표(우슬초글로벌선교회)의 인사말과 동행한 고문 김호동 목사, 이사 김경철 장로, 이사 송정은 권사, 이사 이원희 장로, 이사 정선아 권사, 고문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 등 임원을 소개했다.

㈜지엔에이치바이오 김해성 회장은 자사의 브랜드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사는 생마늘을 주원료로 하는 생마늘은 비가열 무선탕 발효한 마늘 발효액이며 “발효 산화질소 알리오 플러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며 주로 한의원과 일부 병원에도 이 제품을 납품 중이며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해성 회장은 ㈜지엔에이치바이오와의 MOU를 갖고 많은 분들이 “발효

산화질소 알리오 플러스”를 활용하여서 건강해지길 원한다며 인사했다. 김해성 회장은 본사 개발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해린 대표이사는 제조과정을 총괄하면서, 내부 외부 강의 등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으며 전국에 현재 15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개의 카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침구사를 개설하여 많은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며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한국보건교육원 원장 송영운 대표는 한국평생교육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 기업으로 만든 부서이다. 민간이 하지만 국가의 각 부서 지자체와 연결해서 모든 자격증을 발행을 할 때는 각 부서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에 승인을 얻고, 자격증을 발행한다고 했다. 약 15년 동안 많은 사람

들이 미용 건강 쪽에는 국가의 자격증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생활 침구사 제조가 전년도에 발효되어 실질적으로 법적 제안을 받지 않고 자격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제도적으로 유사 의료업이라는 법령이 발효되었지만, 그러나 이 법안이 10년 이상 사용되지 못했는데 이제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생활 치료사를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으며, 송 대표의 뜻은 전문 인력을 키워서 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바람직하며 송 대표 역시 전년도에 1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3개국을 순회하며 사역했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MOU를 체결하고 각사 대표의 진출한 브리핑은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방송에 게재되어있다. 인터넷방송: [## 이흥선 목사를 발제자로 성황리 끝나](http://cpj.kr(cpj tv) & http://jintv.kr(cjtn tv) 등에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p>
</div>
<div data-bbox=)

인천미기연 주최로 송의감라교회에서 개최



▲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



인천지역 목회자를 위한 부활절 준비 제1회 신학아카데미 『신학포럼』이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인천송의감라교회(이선목 목사) 그레이스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인천미추홀구기독교연합회(회장 이흥선 목사)가 주최하고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진유신 목사)의 후원

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부활론에 대한 소고”란 주제로 열렸다.

1부 예배는 송순석 목사(미기연 총무)의 사회로 계정수 장로(미기연 회계, 주안장로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심장섭 목사(장성교회 담임)가 요 11장 25-27절을 본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미기연 직전회장인 이선목 목사(송의감라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최성대 목사(미라클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발제 강의하는 이흥선 목사(총신대학교 평교 실천목회연구 교수)

2부 포럼은 이흥선 목사가 ‘부활론’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성도의 부활체 차이 ▲재림 후 성도의 몸은 어떤 부활체인가? ▲재림 시 우주소멸인가? 갱신인가? ▲성경적인 종말론은? ▲종말의 7년 대환난은 과연 존재하는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등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했다. 이날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예상 인원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장소가 비좁았고, 교제가 부족하는 등 뜨거운 포럼의 시간을 가졌다.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았다. 부활론을 처음 들어 봤는데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런 포럼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포럼은 예상보다 많은 목사들이 참석하여 포럼 장소가 비좁은 상태에서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는 평이다.

칼럼

남북 사람이 하나 되는 그 날을 준비합니다



주경관 통일선교사

저희 MUK - VC(선교통일한국비전센터. 이하 선교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탈북민들을 모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강원도 철원

으로 DMZ평화(안보)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사람 하나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관광 일정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북한 땅이 지척에 바라 보이는 철원 땅에서 적박하고 시들은 북녘 땅에 자유의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고향에 다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탈북민들과, 또 그들과 함께 북을 들고 북녘 땅으로 다시 들어갈 그 날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 땅이었지만 6.25 때 백마고지 전투 등 치열한 싸움을 통해 정취한 철원에서 치열한 전쟁의 그 날을 느끼면서 구 철원 제일교회와 철

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백마고지,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처형으로 죽어간 철원노동당사 건물 등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피바다가 펼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우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떤 평화도 우리의 꿈과 미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1박 2일 일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기록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는 말씀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를 꿈꾸면서 이를 위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의지하여 여호와와 함께 행함으로써 여호와와 함께 행하며 누리는 선교통일대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양대석 목사
부이사장

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새벽(시편 5:3), 밤(시편 17:3),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주의 말씀

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길, 참 치유의 길, 세상을 성공하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을 살리는 길,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해 의식, 잠재의식, 영혼에 깊이 각인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거나 설교를 기록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며, 삶이 바뀌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Abraham king 목사

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2023년 부활절 감사예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절)

증경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정요셉 목사 원들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중록 목사 인악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송인선 목사 양문교회	강대선 장로 평안교회	박용순 목사 화복한교회



본 총회는 뜻을 같이할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전화:(02)496-0191 / 0181(FAX 겸용)

사단법인 :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青松 건강칼럼(886)... Cholesterol Day

4·19혁명 주역 尹埴 박사 별세 대장암(大腸癌, Colon Cancer)



青松 박영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青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4.19혁명 주역 윤식 박사 천국환송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一翼)을 자랑한다... (중략)... 보라! 현실의 뒤틀림 속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짚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이는 1960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총회가 발표한 〈4·19 선언문〉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직후 윤식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회장은 서울 시내 각 대학과의 연합시위를 기획했다. 윤식(尹埴, 1939~2023)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동기생이었던 이수정(李秀正, 1940~2000) 전 문화부 장관에게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 일동’ 명의로 〈4·19 선언문〉을 쓰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 잠드신 윤식 박사(환송 예식장)

윤식 회장은 4·19혁명 이후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을 결성해 ‘남북한 서신교환’ 등을 주장하다가, 1961년 징역 10년형을 받은 뒤 이듬해 형(刑) 면제로 출소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하와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토목학과 농학석사,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그리고 텍사스주 웨이크시 소재 베일리대학교(Baylor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학과장 및 학생처장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하대, 홍익대, 경시대, 국방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였으며, 이후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연구기관에 몸을 담았다. 4·19민주혁명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4월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전 대통령

(초대, 2대, 3대 대통령 역임)의 148번째 생일인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소 앞에 지난 1960년 학생 운동을 주도하여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4·19 혁명에 참여했던 주역들이 ‘통합의 참배’를 했다. 또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화장(梨花莊, 이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탄생 148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와 윤식 국민대 교수와의 특별한 인연은 1970년 10월 필자의 혼인에 즈음하여 ‘함’을 신부턱으로 전달하는 ‘함(函)진아비’ 역할을 당시 동아일보 김담구 기자와 함께 해 주었다. 당시 장인어른(이종항 국민대 총장)과 장모님은 장위동에 위치한 2층 양옥집에 거주하여 주택가에서 조용히 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북고 동창 두 분께 부탁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27일 12시 필자가 재경(在京)경북고39회동창회장으로 ‘팔순(八旬) 축하연’을 명동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을 때 1969년에 결성된 동창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윤식 박사를 초대하여 축사를 부탁했다. 애석하게도 윤식 전 국민대 교수는 대장암(大腸癌) 투병 끝에 2023년 3월 24일 별세했다. 필자 내외는 지난 3월 26일 오전에 주일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강남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30년 우리나라의 대장암(大腸癌, Colon Cancer) 발병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 간암 등 주요 장기의 암 발생률은 꾸준히 줄고 있으나 대장암 발병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247,952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27,877건으로 전체의 11.2%로 3위를 차지했다. 남녀의 성비는 1.4: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

75.6%, 여자 72.3%로 밝혀졌다.

대장(大腸)은 소장(小腸)과 연결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1.5~1.7m이다. 대장은 충수(蟲垂), 맹장(盲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그리고 항문관으로 나누며, 결장은 다시 상행(上行)결장, 횡행(橫行)결장, 하행(下行)결장, S상(袢)결장으로 나뉜다. 직장은 결장 하부에서 항문 바로 위부분까지 15cm가량을 말한다. 항문(肛門, anus)에는 외 괄약근과 내괄약근이 있다.

대장암(大腸癌)이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며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전체 대장암의 약 2/3 이상이 직장과 S상 결장에서 발생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선암(腺癌), 즉 점막의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다. 그 밖에 림프종(淋巴腫, lymphoma), 유암종(類癌腫), 평활근육종(平滑筋肉腫) 같은 것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김남규 교수 연구팀과 스포츠레저학과 전용관 교수 연구팀, 그리고 하버드대 부속 암전문병원 마이아하트 교수팀이 공동으로 총 4,131명의 대장암(大腸癌)과 직장암(直腸癌) 환자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한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가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사망률이 46%, 그리고 대장암의 재발률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04%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암의 재발과 사망률의 증가는 볼 수 없었다.

그동안 당뇨가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모두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를 하나로 묶어 분석한 연구의 결과였다. 이에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를 나누어 당뇨가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의 재발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이다.

대장암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다. 즉 유전적인 취약성,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존재하는 발암(發癌)물질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정상 대장 점막의 세포에서 변성이 일어나 대장에 용종(polyps)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차 악성화하여 그 일부에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대장벽을 파고드는 침윤성 암이 되고, 나중에는 대장 이외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게 되는 전이성 암으로 발달하게 된다.

전체 대장암의 약 10~30%는 유전적 요인이며, 약 85%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장암에는 가족성 용종증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다. 가족성 용종증의 경우, 20~30대에게 잘 나타나며, 95%의 환자는 45세 이전에 발병한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선종이 대장에 발생하여 설사, 복통, 직장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의 경우, 대장암을 포함하여 각종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이 늘고 있다. 대장암 발병은 육류 섭취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과다한 동물성 지방과 육류(특히 붉은 고기) 섭취는 대장암 발생을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한편 식이섬유는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변비도 예방하므로 대장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준다. 이에 매일 채소와 과일을 200g 정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대장암은 정상 대장점막에서 초기선종, 진행선종의 단계를 거쳐 대장암으로 발전하는데 대개 10~18년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정상 점막세포가 용종(폴립)으로 변하는 데 7~10년,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는데 3~8년이 걸린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전암 단계 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대장암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한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그러나 평소의 배변습관과 달리 변비나 설사가 새로 나타나서 상당 기간 계속될 때, 수 주 또는 수 개월 이상 배가 자주 아플 때,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질 때, 대변에 피가 묻거나 섞여 나올 때, 그리고 대변을 본 이후에도 잔변감이나 항문이 묵직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을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진단은 우선 환자의 복부, 배와 목 부위 진찰 및 항문직장 수치검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S상 결장경 검사는 직장수지 검사로 만질 수 없는 상부의 직장 및 S상 결장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장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장조영술, 대장내시경,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경향문초음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검사(PET-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다. 즉,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대장용종(大腸茸腫, colon polyps)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직검사로 절제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없는 50대 남녀에게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된다.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암이 될 가능성이 적은 과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과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다. 대장암은 대부분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용종(폴립)이라는 양성 종양의 단계를 거치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5~10년이 걸린다.

내시경검사로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절제기구로 용종을 절제하고 조직검사로 할 수 있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하다.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용종은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중간대장암이라 부른다. 중간대장암 발생원인의 약 20%는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완전 절제가 원인이다.

검사는 대변잠혈(大便潛血)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등이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매 5~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고통스럽거나 내시경검사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면(睡眠)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한다.

초기 대장암의 대부분은 별다른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 진단은 건강검진 시 분변잠혈 반응검사를 실시하며, 대변에 포함되어 있는 극소량의 출혈까지도 확인하여 대장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이다. 그러나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암의 존재 유무를 관찰함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종(폴립)이 있으면 절제하여 치료까지 할 수 있다.

대장암 치료는 내시경적 치료, 외과적 절제,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암이 점막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지만, 점막하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수술은 대장암 부위를 중심으로 앞과 뒤 정상대장을 포함해 주위 림프절을 절제한다. 직장암은 수술 전에 방사선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병용요법으로 항문보존과 국소재발을 줄이고 있다.

대장암으로 인해 절제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빠른 회복과 합병증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섬유소는 용이한 배변 활동과 대장암 예방을 위해 충분한 섭취가 좋으나 수술 직후에 과량의 섬유소를 섭취하면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섭취하다가 점차 회복하면서 양을 늘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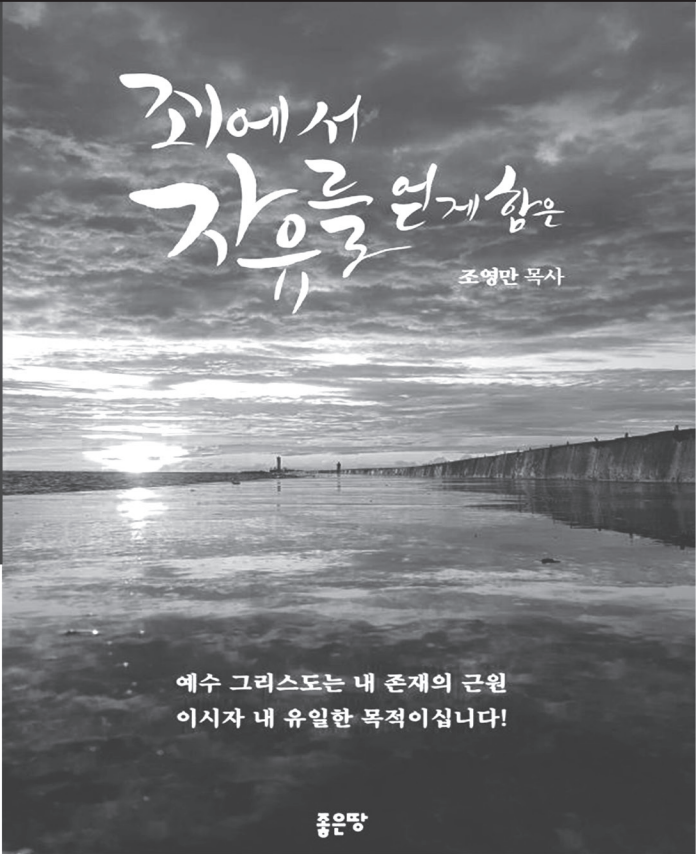
대장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요인을 숙지(熟知)하고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대장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장암 예방은 식탁에서 시작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흡연과 과음을 삼가고, 비만인 경우 체중 조절을 하여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정기검진을 통해 대장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한다.



조영만목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석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지장
현)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인하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나침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상』(나침)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하』(좋은땅)
『자유해리라』(좋은땅 출판사)
『거듭남은 성경새려가 아닙니다』(창송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나침 출판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근원
이시자 내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좋은땅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책가격 : 15,000원
다음 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투브 : 조영만

목차

1. 성경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시굴(새시랑)을 강간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갈시굴(옛시랑) 옮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못사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세상을 이긴 이삼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장대위에 단 노뿔을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절을 하라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18. 죄를 피 돌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하라하시는 의미
20. 고난의 유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우는 것입니다
21. 예금(세상)에서 광애(육신)로
22. 광애(육신)에서 가나안(성령)으로
23.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4. 잃었던 첫시랑을 회복하려면
25. 두 번 죽어야 성경의 은사
26.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서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열광한 다리에 땀 목발?
32.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1)
33.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
34.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1)
35.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3)
36.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4)
37. 작은 말뚝에 매어 있는 불쌍한 코끼리

38.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참니까?
41.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47. 공개! 마음의 경작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함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서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지르느냐?
57.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삼지 마세요!
58. 개집총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2)
6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메벨레와 나비(젓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워진대
70.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71. 일천 척씩 척량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종하 삼층 방주는?
73. 젊어서 누른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광주 자교총(자유통일을 위한 지역교회 총연합회) 창립



자유통일을 위한 지역교회 총연합회(자교총 총재 장경동 목사) 광주지역 교회 연합회 창립총회가 지난 3월 30일(목)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델리하우스에서 지역 교회 목회자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1부 예배는 한국기독교언론부흥회 총재 허창범 목사가 “진정한 애국”(시 137:1)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2부 회의에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설립 근간으로 하는 자교총 정관낭독

과 광주 자교총 정관채택 및 임원 추대가 있었다. 자교총(전국 총재 장경동 목사) 광주지역 총괄본부장 황경순 목사, 고문 정병용 목사 강병태 목사, 회장 김재호 목사, 부회장 김철은 목사, 서기 김윤근, 회계 박우진

목사, 총무 김영주 목사 등이 박수로 추대되었다.

3부 식사는 고문 강병태 목사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며, 광주지역 총괄본부장 황경순 목사(광주사랑하는교회)에서 제공하였다.

웨협 제14대 양기성 목사, 대표회장 취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목사는 “5월 17-18일 열리는 제5차 세계웨슬리언 국제대회를 통해 웨슬리의 위대한 신앙과 삶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는데 진력하고, 세계를 웨슬리언 교구로 삼겠다”며 “영원한 실천 목표이자 선교비전인 ‘성령과 이웃과

함께’라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신앙을 실천·전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격려사에 나선 학술 고문 김준철 박사(전 구세군대학원대 총장), 자문위원 전용재 감독(전 감독회장), 전 대표회장 주남석 목사(기성 전 총회장), 축사는 학술공동회장 이후정 박사(감신대 총장)와 김상식 박사(성결대 총장), 김경수 박사(나사렛대 총장)가 각각 전했다.

이날 명예회장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하성 대표총회장)는 영성 축사를 통해 “양기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임 대표회장 양 목사(청주우리교회)의 약력

이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목사는 “5월 17-18일 열리는 제5차 세계웨슬리언 국제대회를 통해 웨슬리의 위대한 신앙과 삶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는데 진력하고, 세계를 웨슬리언 교구로 삼겠다”며 “영원한 실천 목표이자 선교비전인 ‘성령과 이웃과

함께’라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신앙을 실천·전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격려사에 나선 학술 고문 김준철 박사(전 구세군대학원대 총장), 자문위원 전용재 감독(전 감독회장), 전 대표회장 주남석 목사(기성 전 총회장), 축사는 학술공동회장 이후정 박사(감신대 총장)와 김상식 박사(성결대 총장), 김경수 박사(나사렛대 총장)가 각각 전했다.

이날 명예회장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하성 대표총회장)는 영성 축사를 통해 “양기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임 대표회장 양 목사(청주우리교회)의 약력

“존 웨슬리처럼, 가슴 뜨거운 성령 운동 진력할 것”

이날 1-2부 순서에 따라 진행되면서 3부 취임식은 대표회장을 소개한 김진두 박사(전 감신대 총장)는 “양기성 박사는 평생 웨슬리 가르침을 실천하고 연구했던 웨슬리언이자 탁월한 실천신학자이고, 목회자로서 보기 드물게 행정학을 깊이 공부하셨다”며 “개신교 3대 스승인 루터와 칼뱅,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신임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설교 말씀을 따라,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 후 무너진 교회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슴 뜨거운 성령 운동과 성결 바람을 일으키는 데 진력하겠다”며 “6개 형제교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의 형제애로, 성자신학 마르틴 루터, 성부신학 존 칼빈, 성령신학 존 웨슬리 등 개신교 3대 스승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을

은 서울신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M.P.A), 청주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아주사퍼시픽대 신대원(Th.M)에서 수학했다.

양 대표회장은 동안개봉교회, 부산동광교회, 광명교회, 충북저산교회, 미국 뉴월드교회, 청주교회 등에서 목회했으며, 서울신대·성결대·나사렛대·아신대 대학원 교수, 동경 코넬대 겸임·외래교수, 미주성결대 카우만대학원 초빙교수를 거쳐, 청주신학교 이사장 후 학장을 맡고 있으며, 기성 부흥사의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5월 한국웨슬리언지도자협의회를 창립해 지난 회기까지 사무총장으로 섬겨왔다고 했다.

지타즈·언부협 안성에서 기도회 가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문방송



지저스타임즈(이하·지타즈 이사장 오종철 목사(홍성 평안하고든든한교회),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이하·언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는 “내 허는 필객의 붓과 갈도다!”(시 45:1)를 주제로 지난 3월 24일(금) 오전 11시 안성삼성중앙교회(임명숙 목사)에서 2023년 3차 월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언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수석상임이사 임명숙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이사장 왕대석 목사(수원엘림교회)가 기도문, 상임이사 김사라 목사(광주푸른솔교회)는 시 23:1-6절 말씀을 봉독하고, 상임이사 김창숙 목사(꾸미오리 워십단원)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워십을 가졌다.

부사장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는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부사장 조 목사는 “여호와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했다. (조영만 목사의 설교의 말씀은 아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다. 설교 생략...)

명예이사장 박중서 목사는 격려사를, 부이사장 강익수 목사(아산임마누엘교회)는 축사를,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 외 일행은 봉헌 찬양을, 본지 대기자 자존한 목사가 봉헌기도를,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의정부 예복교회)의 인사 말씀과 언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마울신학교 총장)의 언부협을 위한 소개와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인천영광교회)의 광고 및 신문방송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이어진 합심하여 특별기도회에서

는 ① 지저스타임즈 및 cjtn tv, cpj tv 방송선교를 위하고 언부협을 위하여, ② MOU를 체결한 국내의 방송과 신문사, 각 교단을 위하여, ③ 섭기는 교회와 가정, 이사를 맡고 있는 개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④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양국화로 국민의 불안안을 조성하고 있는 각 정당의 조속한 화합의 날을 바라며, ⑤ 장소를 제공한 삼성중앙교회와 성도들, 담임 임명숙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가 진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와 기도회는 언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지타즈 직전이사장)의 축도와 기획총괄이사 송영운 목사(한국의사)의 식사기도에 이어 월례회 단체기념 촬영을 가졌다.

이어진 월례회는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 cpj tv 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덕담으로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으며 5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 예복교회(사장 소진우 목사 시무)에서 갖게 되었다.

한편 인천영광교회(증경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지난 24일 봉헌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또한 예복교회(사장 소진우 목사)는 지난 26일(주일) 교회설립 29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6일 오후 5시 경기도 하남시 소재 뽕엘교회(강정자 목사)에서는 장로 임직과 권사 취임이 거행되었다. 이날 모인 전 회원은 전심으로 축하했다.

인성에서 열린 지타즈 및 언부협의 예배와 기도회에 설교와 축사, 격려사, 워십 등이 녹화되어 방송 중이다. (cjtn tv http://jntv.kr, cpj tv http://cpj.kr)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큰 은혜가 된다.

"쉬운목회"

이춘복 목사 지음

(남현교회 원로)

언론사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
필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의 양식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누구나
다 읽어보고 싶은 이춘복 목사의 40년
목회의 경험담! 쉬운목회! 교회 사랑의
목회! 노하우를 한 눈에...

이춘복 목사 저서 쉬운목회
구입은 :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목회 회상 시리즈 01

쉬운 목회

이춘복 지음

쉬운 목회는 어찌 보면 교만한 말 같다.
목회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면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목회는 쉽고 행복하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영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
며"(골 3:23)

킹덤북스
Kingdom Books

제가 아는 이춘복 목사님은 사람이 많으시고, 상대를 배
려하고 양보는 분이시며, 만나면 편안함을 더 만나고 싶
은 분입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삶이 목회 생활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은 이춘복 목사님의 40년 목회
철학이 담긴 목회 간증서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소개하
고 싶은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 뜻
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
문에 쉬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신학생들과 이 시대
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읽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제서 총장(총신대학교 총장)

이춘복 목사는 청년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목회의 선배이신 이춘복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0
년 동안 함께 사역해 오면서 이춘복 목사님은 얼굴과 행동
에 있어서 천부적으로 목회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온화
하시면서도 유머 감각이 풍성하시며, 진솔하고도 추천력
이 있으시며 어느 곳에서나 화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력으로나 목회적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시고, 은퇴 후에도 사역이 넘치는 분으로 부
러움을 대접합니다. 이 책은 실천적 목회 사역 현장에서의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송홍도 목사(대한 예수교 장로회(대한) 총회장)

근번 이춘복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 교
과서라고 할만한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신학 서적과 설교
에 대한 책들은 많아도 목회 실제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
이고 실제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만나는 것은 결
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춘복 목사님은 교계적으로 훌륭
한 지도자요, 목회도 개혁하여 대성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이춘복 목사님의 40년 목회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이야기이기에 더욱더 감동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모
든 목회자들과 목회 후배들에게 가까이 추천합니다.
박명희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목사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거룩하고 순
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
범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교도 살게 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
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배
생들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정애 목사(남현교회

▶게시록 11장 강해(64)

두 증인의 사역

(지난번에 이어서)

두 증인의 사명 끝난 후 순교: 이들이
게시록 11강해(64) 두 증인의 사역

남은 자의 회개 계시: 그런데 13절의 남은 자들을 예비처 성도들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비처 성도들은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 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속 12:9]에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제 3차 대전으로 이스라엘 아말겟돈에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후 [속 12:10~13:1]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속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바울을 통해 [롬 11:25~26]에 이방인의 수가 총만히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고 그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이 오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가 예비처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17:20~22]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제자들 뿐 만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 한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과 모두 하나가 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세계□제 1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이 벨푸어 선언을 통해 시온 의정서가 나오 고 시오니즘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가 연해진 것입니다. 이후 잃어 무성 함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모습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때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이므로 [호 6:2] 이를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계 11:13]의 시점에 이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후 삼년 반에 들어가서 세계 제 3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찔러 죽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 제 1,2차 대전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3차 대전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이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16절: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 네 장로가 얼굴을 대고 앞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17절: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셋째 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면적인 것으로 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15절의 하늘에서 큰 음성과 같이 이 세상 나라들이 없어지고 주와 그의 왕국으로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세상 국가들이 없어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없어지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믿고 실제 되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세워질 나라가 천년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거기에 속하여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세상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 비극이고, 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가 재림하실 때 그 언약하신 것을 믿고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희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세워

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활동하고 활약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인계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절시켜지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여 그 나라를 쳐벌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리스도가 친히 정권을 세우시고 법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영토이고, 천년 왕국의 백성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주의 재림 이후 세우실 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심전력 자기들의 사상으로 주장하였기에 주님이 세우실 왕국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나오는 스물 네 장로는 하나님나라 성도들 중 가장 믿음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보다 먼저 믿음, 하나님 심정에 일치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이들 모두 스물 네 장로가 되며 신약의 열 두 제자들 뿐 만 아니라 순교했던 자들, 그리고 환란 때 순교자들과 두 증인들이 모두 앞선 자들, 스물 네 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앞선 자들이기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영적통치 뿐만 아니라 직접 나라를 세워 정부를 세우고 정사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계1:4]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였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통치와 심판을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더라.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분노하는 자와 상 받는 자: 여기서 멸망 받는 자들과 상을 받는 자들 두 부류

가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된 후 두 증인이 나와서 증거와 예언을 하는데 이를 듣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욱 분노하고 악을 쌓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18절의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종들을 대적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들이기에 죽은 자들의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백 보좌 심판 때 상급심판으로 상을 주시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 때가 아니라 주의 재림 후 일천년 지난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교한 자들이 일천년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또 이들이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또 순교 신앙단계를 지나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열매도 있는데 이 열매대로 임해주시는 것도 상입니다. 이 상 중 가장 큰 상은 환란 날에 144,000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다윗이나 사도요한보다 더 큰 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첫 열매이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18절의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은 두 증인 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의 선지자들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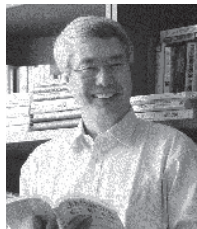
또 여기서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주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자들입니다. 바로 순교의 신앙에 선 자들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자들이며 환란 날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으로 순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첫째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며 살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데 이것이 또 추가적인 한량 없는 열매가 되어 즉각적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상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나라에서 부활체로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이 더해지는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입니다. 이들을 훼손했다는 것은 이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다 죽인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사랑의 클리닉<24>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



강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50대가 되어 수영을 시작한 교수부부가 아침이면 일어나 물살을 가르다. 수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벌써 8년째라는 이 교수는 체력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30대의 심폐기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만 노인이지 속은 청년인 셈이다.

허리가 아파 결근이 잦았고 위장장애 만성피로 등 잔병이 많아 삶에 의욕이 없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건강관리는 꾸준한 운동, 운동은 역시 수영'이라며 환한 얼굴로 넘치는 건강을 과시한다. 건강관리의 기본원칙은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남이 먹는 보약이나 건강식이 좋 아 보이고 색다른 방식의 건강법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때 해외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물개 사냥, 뱀 사냥, 코뿔소 사냥 등은 이제 옛말이고 심지어는 요즈음 '요로법'이라 하여 자신의 오줌을 건강음료로 매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니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상식이나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건강법은 삼리적 효과가 있을 뿐 실제의 건강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 기이한 행각을 하는 사람치고 건강에 자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것 하나 실통치 않고 그러다보니 몸에 좋다면 귀가 번득 뜨인다. 새로운 방법도 얼마동안 하다보면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폐기처분한다. 갈수록 몸은 허해지고 악순환은 계속된다. 건강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다.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쓸데없는 욕심과 조급한 성격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열매를 만들어달 수야 없지 않은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건강은 생활의 문제다.

생활의 현장에서 건강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만이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원리가 입증된 한 가지 건강법이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할 경우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 등에서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하루 20분 이상, 주 3-5회 정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시작했으면 효과를 느낄 때까지 초지일관해야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4-6주, 허약한 사람의 경우 8-12주 정도 지나야 운동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캠퍼스시절 필자가 활동했던 선교단체의 행사에서 신앙의 후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의 캠퍼스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라는 깃발아래 눈물과 기도를 심었던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신입생인 듯한 한 후배가 '나도 빨리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을 토로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캠퍼스 시절 4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물론이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겸비되어야 한다. 신앙의 성장에는 아무래도 연륜이 필요하다. 온전한 신앙성장은 전인적 성장(지식, 인격, 정서, 경험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신앙에 있어서 '속성재배'란 본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섭리의 강물을 따라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이 신앙성장의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축 2023년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종신대학 이사장)

주일에 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시구약예배(금)각 구역별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욱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인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 총회장)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영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춘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매장터로 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視務牧師 서병범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마순덕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경기도 안성시 구미로 218(구미동) 4030-4087-346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주총회장)

주일에 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일아침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r.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관호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 **예수님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들 14** |

세마포로 옷 입고 신부 단장하라

(지난 시간 이어서)

⊙ 룯 3:15에? 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보리 여섯 되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리를 여섯 되를 되어서 지게 하니, 했는데 보리 여섯 되는 6000년 역사의 그림자이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 1:14절에서 말한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전념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행 2:3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이것은 헛된 일이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룯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 와서 기다린 것이다.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와 같이 나왔지만, 그러나 한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쯤은 따라 나왔으나, 따라가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한다. 그리고 뒤돌아 간다. 그렇지만 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간다. 여기서 오르바는 중도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신자들의 모형이다.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다같이 열심히 내며, 따라간다.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따라간다. 그러나 얼마쯤 가다 보면 신앙의 낙오자가 많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뒤돌아 가는 자들이 많다. 오르바는 바로 룯의 처의 모형과 동격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도 룯의 처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오르바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 마지막에 중도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끝장이다. 신부의 자격에서 실격되고 만다. 오르바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룯의 처도 그렇다.

마지막 때 뒤돌아본 신앙, 교회를 떠나면 끝장이다!
이것은 분명코 신부의 자격에서 실격이다. 마지막에 신부의 자격은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을 몸에 바르고 단장하고, 그리고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님의 발치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섬겨드려야 한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열심히 신앙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할지라도 그 무엇을 바라는 것도 없다. 오직 내가 신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 오직 신앙을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룯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일을 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으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이삭을 주어가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린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바가 크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멘.

고전 1:18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하셨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능력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으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다 포기하고 만다. 룯의 사건은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기 나오미와 룯만 아는 비밀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교회는 이러한 비밀을 알 길이 없다. 오직 영적인 교회들만이 알 수 있다. 깨어 있는 교회만이 아는 것이다. 영적 성도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비밀 속에서 보아스와 혼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께 재림하시는데 그날, 룯처럼 신부단장 잘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2. 두 증인의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한다

계 14:4~5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정기남 목사

편집인



1. 두 증인들의 활동과 시집

애초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란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할 제목은 “두 증인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두 證人들의 活動이 시작되는 시집을 알아야 한다. 두 證人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 14:4~5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었기 때문이라. 고 했다. 여기서 여자는 육적인 것과 관계되고, 이는 또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한 입에서 교활함이 없는 신부로 단장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만이 두 證人의 자격이 주어진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만이 두 證人의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우리가 따라가다가 중도에 뒤돌아선다면 스스로 불행한 자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변화산까지 따라간 자들이 있다. 그들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3명만이 표상이 된다. 아홉 제자들은 산 아래서 귀신 쫓는 일을 했다. 오직 세 제자만이 변화산까지 예수를 따라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홉 제자들은 두 證人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 요 4:35에 ‘너희가 아직도 너희 밭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추수의 개념을 모른다면 두 증인의 자격이 없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양칼럼 3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 -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JTN TV 부사장



지난호에 이어서

35.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엢 3: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23,24).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과 성령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므로 그 산 믿음이 능력이 되어 성령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 : 12).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롬 6 : 11),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롬 6 : 2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 : 2)는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 : 6)라는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 : 17)라는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이전 것(옛사람)을 버릴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도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엢 5 : 8)는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어둠을 버릴 수 없고 빛의 자녀들같이 행할 수도 없습니다. 혈기와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판단, 정죄, 방탕함 등의 죄에서 이미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는 믿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길과 생각과 생명(혼)을 다해 행하는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되셨으니”(고전 1 : 30)라는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방법)과 자신의 옳다는 생각과 자신의 생명(혼)인 자기 믿음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방법)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 하루살이에게라도 놀려 죽을 인생이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놀려 죽을 자이었느냐”(욥 4 : 19). 썩어질 육체를 가진 티끌 같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놀려 죽을 인생은 다가오는 시험도 티끌과 같고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만물이 들어오므로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인생은 다가오는 시험도 크게 생각됩니다.

티끌 같고 하루살이 같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시험을 작게 여기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에 시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신발에 큰 발을 맞추기 위해서 발을 자르기보다는, 자기의 작은 신발을 포기하고 주님의 큰 발을 원할 것입니다.

롬 6:17~19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였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18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

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 : 17~22).

원수마귀(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편과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죄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모든 죄가 씻겼다는 사실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와 공로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기 도취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자기의(자기義)와 자기 열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4).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 : 1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축 2023년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강대울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평안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합동보수신학학술원』



성경신학, 실천신학 중심의 실천교육
대학/2년 8학기 대학원/1년 6개월 6학기
(주.아, 사이버(월.화.수.목.금.토)/수.지모집
연구원/리더십 과정, 학술원/교수양성
설교전문대학(단기12주/장기1년/전문2년
서울본원/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유평1동216호)
부산본고/부산 수영구 광서로14-1
분교(수원.인천.대전.대구.광주.청주.전주.울산.창원.춘천.제주

총장 : 차요한 목사(Ph.D) HP:010-5341-1239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 (02)465-4090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일예배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개로 366(가좌동)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평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담임 오종설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로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환장 박선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곡리

☎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한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정기한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임명석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일예배 : 오후 7:00
금요일예배 :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00

담임 임명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세계영성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일예배 : 오후 7:30,
목요일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일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헤븐 스피치 출판기념회 '언어구사중요' - 전아 목사 인터뷰, 책을 쓰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강의 자료들을 책으로 엮는 것은 또 다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정리되어 상쾌하기까지 하다. 또한 집필을 하면서 그간에 수강자님들을 반갑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간의 축복언어 헤븐 스

피치운동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축복언어와 만났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본서에서 언어는 의사소통 및 감정교류, 치유 등의 '순기능(順機能)'이 있는가 하면 폭력언어, 거짓언어, 포장언어 등, 말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逆機能)'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였다. 언어의 '성서적 조명(biblical research)'을 통하여 언어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의 '명령권(命令權)'과 축복권(祝福權)을 부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언어적 소명(召命)'임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언어에서 '언어의 원형(The origin of language)'에

복' '바른 호흡법'을 통한 건강 언어생활'을 촉구하였으며 '성서적 언어생활의 놀라운 회복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헤븐 스피치관점'에서 선별한 '강의 10선' '설교 20선'을 통한 '헤븐 스피치'의 성서적 근거와 생활 실제 적용을 살펴보고 '축복언어'로 여는 새 아침'(93.1MHz), 방송 큐시트(Q sheet/12선)를 올리므로 '헤븐 스피치'의 복습 효과를 기대하였고 '헤븐 스피치시각'에서 20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므로

놓치기 쉬운 '사전만남효과'를 기대하였다. '사전만남효과'란 향후 그런 사람과 조우하였을 때 이미 만나본 경험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해야 할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영성언어 진단표'로 자신의 언어진단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수강 후기 100선'에서 축복언어의 놀라운 기적을 나누었다.

'헤븐 스피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본서를 여러 번 읽고 복습할 것과 '축복 언어 치유 세미나' 참여를 권유한다.(세 차례 참여 후 내용에 흡착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 증언) 또한 본서를 구입하신 분은 1회의 공개강좌참석과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다. 저자/010-8200-9172 전아.

한편 땅에서도 하늘같이 말하라 '헤븐스피치 축복언어 세미나' 상반기 일정은 아래 광고 참고를 바라면서 이 기간 헤븐스피치 출판기념 50% 행진은 4월부터 6월 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칼럼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별별 성도들을 다 만나본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교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도 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다. 그대 성도들은 다 내 자녀나 마찬가지로이다. 성도를 사랑하되 "자식 사랑하듯 사랑하며 목회를 하였다".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다. 조건 없이 입혀주고 학비를 제공해주며 용돈도 주고 혼기가 되면 결혼 준비를 다 해준다.

자식에게는 주는 것이 기쁨이

며 베푸는 것이 기쁨이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가? 일방적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 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을 부리고 반장이 맛이 없다고 짜증을 부린다. 짜증 부릴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짜증을 부린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이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나를 좋아하는 성도나 싫어하는 성도나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다.

이준복 목사 저서 "쉬운 목회" 중에서...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 방송은 이 준복 목사의 '쉬운 목회'를 연재하게 된다.

이준복 목사 저서 구입처 : 전국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 언론사는 "쉬운 목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준복 목사
남현교회 원로



4월 첫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꿈은 길 위에서 잠들지 않는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의 꿈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언제가 제가 쓴 '꿈은 길 위에서 잠들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꿈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고독한 별빛 아래서 잠들고 차가운 새벽이슬을 맞으며 깨어나는 외로운 길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120원짜리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수

저는 지난주 월요일 우리 총회 산하 농어촌 목회자부부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김에 '일상적인 투어가 아닌 의미 있는 관광을 할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교회 최진영 집사님(코리아헤럴드 대표)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온 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명소나 혹은 유력한 분을 좀 만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베트남 대통령 친구이자 5선 국회의원과 저녁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게 없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스타레이크시를 방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노이에 있는 60만 평의 노른자 같은 땅에 서울 강남과 같은 특별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 투자하여 지금까지 개발을 주도해 왔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다 완공이 되어 이미 2천 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어 2, 3차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추후 빌라와 아파트가 계속 건설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국회, 11개 행정부처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런 곳을 가보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다음 날 스타레이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국진 현지 법인장과 직원들이 친히 나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스타레이크시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사업을 꿈꾼 드림 메이커가 누구였습니까? 혹시 김우중 회장이 입안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것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에 와서 "아, 여기는 정말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신형 아파트와 빌라 등의 새로운 신종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런 신도시 건설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다 그만두고 대우건설이 끝까지 해 왔다는 것이구요.

저는 도시 모험도만 보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뷰를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하나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인 나라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고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대우건설을 추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비록 그 꿈을 본인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꿈꾸는 자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

았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의 꿈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언제가 제가 쓴 '꿈은 길 위에서 잠들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꿈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고독한 별빛 아래서 잠들고 차가운 새벽이슬을 맞으며 깨어나는 외로운 길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120원짜리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수

그렇습니다. 꿈은 길 위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들 수 있으나 꿈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것이 하상이요 야망에 불과하다면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좌절하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길 위에서 잠들지 않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은 내 생전에 이루어지든지, 천국 간 후에 이루어지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꿈을 꾸어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름다운 뷰티풀 드리머(beautiful dreamer)가 되어 길 위에서 잠들지 않을 찬란한 별빛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축복언어 세미나 상반기 일정 및 헤븐스피치 출판기념 50% 행진

복되게 말(Blessing)하면 삶이 회복되고
바르게 숨(Breathing)쉬면 몸이 회복된다

저자/강사 : 전 아 목사

- 헤븐스피치 축복언어 원장
- 연출연기전공 방송인(T.B.C 동양방송 성우 실장역임)
- 대표작 : 독수리호형제 1호 주인공, 연극(대미안 루터) 영화 (인디언메이)
- 연극, 연출, 기획, 극작 제작자로 200여편 활동
-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제77회)

- 연애인교회 10주년 기념작 타오르게 하소서, 구성 연출
- 1985 M.B.C 성탄특집방영, 기독교문화대상 운영문화상 수상
- 세세로교회, 열린교회, 예수로교회 담임목사 시무
- 신학대학에서 성서적 언어문화, 강단스피치 설교학 강의
- B.S.T.C(Blessing Speech Therapy Course) 개설 100여기 배출
- 1000 여회 순회 강연
- CBS 새물개하소서, CTS 명강의, 스페셜 CTS 초대석
- 극동방송 하나되게 하소서, 사랑의 들안, FEBC 초대석
- 광주극동방송 축복 언어로 여는 새아침
- 한국스피치 강사협회 1, 2대 회장 역임



4월 공개 : 4일(화) ~ 7일(금)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저녁반 6시
정기 : 8일(토) ~ 4주간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저녁반 6시
집중 : 1차 10일(월) ~ 11일(화) 2차 17일(월) ~ 18일(화) 11시 | Welcome tea & 등록 11시/ 1강, 1박 2일 4식 5강

5월 정기 : 6일(토) ~ 4주간 | 8일(토) ~ 4주간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저녁반 6시
집중 : 15일(월) ~ 16일(화) 11시 | Welcome tea & 등록 11시/ 1강, 1박 2일 4식 5강

6월 정기 : 3일(토) ~ 4주간 | 8일(토) ~ 4주간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저녁반 6시
집중 : 5일(월) ~ 6일(화) 11시 | Welcome tea & 등록 11시/ 1강, 1박 2일 4식 5강

공개 및 정기 선릉 강의장 선릉역 1번 출구 성결회관 옆 선릉로 86길-31 롯데골드로즈 2차 403호

집중 활화산영성원(정하영 원장 010-5172-6400) 경기도 화성시 배미길 52(031-358-0199) 사당역 9번 출구, 좌석8155/ 수원역 6번 출구, 좌석9802 조암터미널 하차 전화픽업

공개 및 정기 공개 강좌 - 책구입자 무료 정기 및 집중 강좌 - 12만원 신한은행 110-387-236525(예금주:송세운)

다음카페(헤븐스피치축복언어원)으로 들어가셔서 댓글로 신청 | 문의 010-8200-9172 |

헤븐스피치 '발간에 즈음하여 헤븐스피치축복언어 세미나 교회 및 기관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언어부흥회2년연속개회(의정부신촌교회/우세근목사) 축복언어부흥회(천산교회/김수구목사) 청소년축복언어힐링세미나(상계한빛교회/박규식목사) 축복언어새벽부흥회(주사랑교회/김만배목사) 축복언어2일초청특강(전주바울교회/원필연목사) 축복언어부흥회(성광교회/천귀철목사) 축복언어힐링세미나(충남지방회) 축복언어세미나(빛과소금교회/송영길목사) C.C.C대학생교회(L.B.S방송소/허인간사) 여름성경학교교사강습회(교사의언어파일을 진단하리!/서울서노회교회학교요양유치부연합회) 부흥사의강단스피치(세계성경화부흥사연수원) 광주지역학강사과정스피치기법(이심일세기미디어닷컴RESTREE/최준호교육원장)

교사의파워스피치(신성고등학교) 스피치마스터코스(S.M.C/사회자스피치(M.C.S/자기경영플러스/안용성대표) 마인드스피치/강사다움스피치/모노드라마스피치(한국스피치강사협회/이상동 이사장) 웃음운동강사스피치(웃음운동본부/김성업 이사장) ※ 지면관계상 언급하지 않았으나 축복언어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 및 기관의 1000여회 초청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회초청
헤븐스피치 프로그램

특강 : 60분~180분/ 헌신예배 : 40분~60분/ 축복언어세미나 : 1일~2주 연속/ 축복언어부흥회 : 월~목(10시간) ※ 일정과 시간은 교회 상황에 맞게 협의로 진행됩니다. 협의 : 010-8200-9172(강사직통)

세기총, 부활절 메시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리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명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로 승리한 자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두려움의 근원은 사명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함을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부활신앙을 전파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였으나 주님은 그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부

활 신앙이 없으니 온갖 죄악에 탐닉되어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전파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에 대한 승리입니다. 생명은 성장을 수반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며 부활 신앙의 바탕 위에 함께 설 때에 대한민국 전국방방곡곡에,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모임이 약화되면서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먼저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대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심, 탐심, 교만을 몰아내고 내 안의 성전부터 정결해져야 하나님 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계속되며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간의 대립으로 이를 둘러싼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계층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한숨 짓는 이들이 많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의 부활 소식이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져서 주님이 선포하신 '살림'이 북한 땅에 임해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활 생명의 겨자씨가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30배 60배 백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한인diaspora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0-22)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2023년 부활절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금년 부활절에는 비로소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변화의 희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부활절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 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편 가르기와 이권 다툼으로 나뉘고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짐을 본받아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이들과 다문화 가족,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고통받는 전 세계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미사일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핵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국제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 보금자리가 없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

의 자연과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실천하고 무분별한 탄소 배출과 자연 파괴의 일들을 막아 늘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에서 지구를 보호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구절벽을 맞이한 절망적 현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부활절에는 울진지역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올해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헌금해주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공동대표회장 권순웅 송홍도

2023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기자회견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



▲ 좌측부터 김순귀 목사, 이강준 목사, 이영훈 목사, 엄진용 목사, 김종명 목사

2023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여의도순복음교회 1층 베들레헴성전에서 2023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위원장 김순귀 목사(언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백석 사무총장)의 참석자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대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인사,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총무)의 인사 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영훈 대 회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며, 축복의 사건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의 소식을 전한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했다.

이날 이영훈 대표회장은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이번 부활절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려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또 “특히 올해는 한국 기독교 72교단이 동참 4월 9일 오후 6시에 “2023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로 영락교회에서 드러지며,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같은 주제, 선언문, 설교문, 포스터 등을 공유 전국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며 선언했다.

그런서 “바라기는 2023년 부활절

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선포하며, 침체한 교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며 첫째, “우리는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편 가르기와 이권 다툼으로 인해 나뉘고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둘째, 한국교회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도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계속되는 미사일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핵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제들이 무너져 참된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셋째,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전 세계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넷째, 한국교회는 온난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의 자연과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오랫동안 이어온 부활절연합예배의 전통대로 존중하여 예배의 헌금 전액을 저출산대책위원회에 보내며,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의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소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위와 같이 부활절연합예배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기자회견 후 단체 기념 촬영

축 부활 2023년 예정진리총회&대한노회

2023년도 신앙목표 :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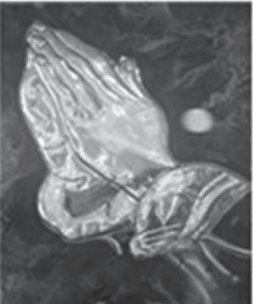
대만 : 대한노회 정기노회
노회장님과 노회원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총 회 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총 무



정 요한 목사

서 기



김 종천 목사

회의록서기



김 은임 목사

회 개



김 정미 목사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전상열 목사 010-453-1719

강원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신임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가 28일 오전 11시에 횡성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 취임식을 거행했다.

양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2023년 강원도 18개 시군 회장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겠다"며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뿐 아니라 강원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남북평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고 전했다.

양 대표회장은 또한 "강릉세계합창대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데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수형 직전대표회장은 "많은 일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지를 받아 3년 동안 잘 해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축사에서 "이수형 대표회장님이 3년의 임기 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그동안 <춘천기독교120년사>를 출간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이어 "횡성감리교회는 저와 인연이 깊은 교회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교회다"며 "3.1운동을 강원도 횡성에서는 4.1로 기념을 하는데 그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받으셔서 대표회장직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기총을 통해 강원도 지역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기한 도의회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이수형 목사님은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강원도 기독교인들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주셨다"며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강원도에 큰 빛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하시는 명망 높은 양명환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회원들과 연합회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 주시고 곳곳에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면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로도 뛰어난 해안과 용기로 연합회와 강원도의 걸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하중 사무총장은 작년사업보고 및 새로운 계획을 보고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 크게 4가지가 있었다"며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를 모두 초과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기총 정책세미나, 한국교회 복음통일선교대회, 강원도 조찬기도회, 강원특별자치도 축하와 비전공유 '블레스 강원'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며 "특별히 도지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토크 콘서트가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했다.

2023년 사업계획으로 △강기총 정책세미나와 강원특별자치도 조찬기도회, △6.25한국전쟁 73년 연합행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올림픽 자원봉사 컨퍼런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올림픽 성공기원 문화축전' 등을 사무총장이 보고했고, 이를 위한 회원교회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 모교에 장학금 기탁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에서 총동창회 주관예배 인도하고 8300여 만원 기탁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진하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오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에서 총동창회 주관예배를 드리고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기탁했다. © 뉴스파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진하 목사)는 지난 3월29일 오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에서 총동창회 주관예배를 드리고 2023학년도 1학기 장학

금을 기탁했다.

총동창회가 전달한 장학금은 지명장학금 3천여만 원, 김평수 장학금 1천만 원, 선발 장학금 4천만 원으로 총 8천여만 원이며, 총

동창회 임직원들의 회비 반액과 고 김평수 사모님이 기증하신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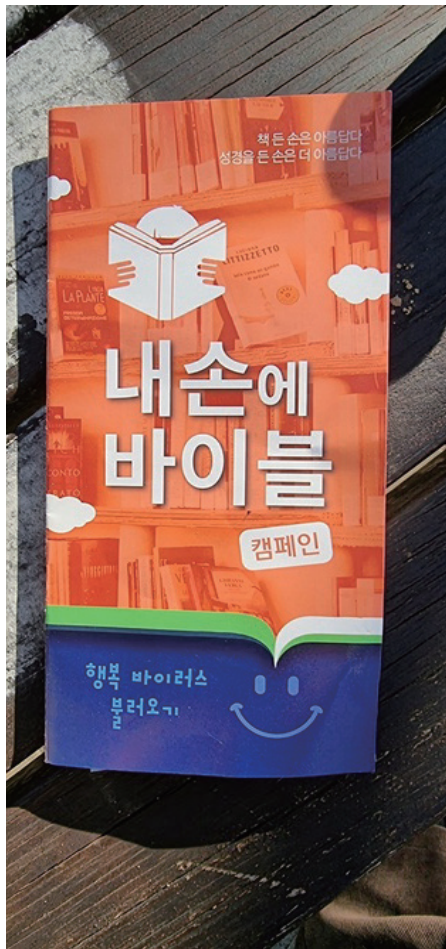
또한 총신 신대원 동창 및 전국 노회 산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후원한 금액으로 1천만 원 상당의 2023학년도 1학기 사람의 식권을 지급하고, 성경회독과 돌로스 찬양대의 특송 후에 한상욱 목사(광원교회)가 예레미야 29장10-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경회장 김창근 원로목사(광원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장학금 전달식은 상임총무 남서호 목사(동산교회)의 사회로, 명예회장 배만석 목사(사랑사루교회)의 기도 후 회계 김재철 목사(장성교회)의 성경봉독과 돌로스 찬양대의 특송 후에 한상욱 목사(광원교회)가 예레미야 29장10-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경회장 김창근 원로목사(광원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장학금 전달식은 수석부회장 황재열 목사(부산세광고교회)의 인도로 진회장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총신 신대원 김상훈 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천지집단, 이제는 가가호호 포교활동 "주의해야"

세 명인 한 팀이 되어 아파트, 가정집, 빌라 등 다니며 포교활동



한국 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집단의 포교활동에 주의와 경계가 요청된다.

이만한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집단은 옥외 영상홍보, 거리에 무료성경신학원 현수막 설치, 신문 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에서 신천지임을 드러내고 포교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빌라, 집을 다니면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대담해진 것이다.

신천지집단의 포교전략으로는 ▶위장교회(제자훈련, 부흥사경회, 품성학교, 문화강좌 등) ▶위장세미나(자기개발특강, 연예특강, 회복세미나, 찬양집회, 말씀집회, 아바

지학교모방, 힐링콘서트 등) ▶위장상담(힐링상담, 진학상담, 신앙상담, 다문화가정 및 탈북자 상담, 유대인학습, 자녀양육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설문조사(도행상담, 애니어그램, MBTI, DISC, 혈액형검사 등)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원(POP, 종이공예, 오카리나, 비누만들기, 꽃꽂이, 요가 등) ▶문화공연 ▶은사(순금, 타로, 꿈, 환상, 기도원 등) ▶재능기부(구연동화, 재봉틀, 리본공예 등) ▶동호회(승마, 축구, 탁구, 독서지도 등) ▶건강(수지침, 발마사지, 이혈침, 봉침 등) ▶스마트폰 어플(맛집투어, 밥만끼와 토코, 여행, 피아노 등 모임 등)이다.



한기보, 부활절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과 싸움을 끝내고 승리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생명의 기쁨을 즐기는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 모든 위로의 위로가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의 평강을 여기 이 세상에서 벌써 맛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즐기는 날이 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하여 주님의 뜻을 섬기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봉사하며 살아갈 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호 목사

한국기독교교단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2023년 **축 부 활**

성령이 이끄시는교회
성령이 일하시는교회

이요셉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예) 오전 7시30분 주일 2부예배(예) 오전 11시
주일밤예배(예) 저녁 7시30분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금요일아예배(금)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기도회 3시 : 저녁기도회 9시 : 철야기도회 0시30분
주소: 전남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전화: 061-277-0496 차량운행: BUS 3번, 60번, 600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8.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안내

축 부 활

주일새벽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새벽예배 2회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일 새벽예배 오전 5:00

담임목사 모상현

목포주안교회: 목포시 정호로 189(목포동) 전화: 061-278-4248 278-1006
남양주안교회: 무안군 삼향읍 남양로 60번길 17 전화: 061-287-0382
동양주안교회: 목포시 용두사거리 6(연산동) 삼일빌딩 301호 전화: 061-277-0591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비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원로 허창범 목사
연부협 총재

담임 김사라 목사
호남노회 노회장

제 1부 예배	오전 8:00	2중 예배실	금 오 기 도 회	저녁 8:00
제 2부 예배	오전 11:00	2중 예배실	새벽 예배	미월(월-금) 새벽 5:00
제 3부 예배	오후 1:30	2중 예배실	전 도 야 각	미주 토요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예배	오전 9:00	지하예배실	복 습 각 교	미주 토요일 저녁 7:00
중 고 등 부 예배	오전 9:00	2중 예배실	성경 Academy	미주 토요일 오후 2:00
수 요 예 배	토계 오후 7:30	2중 예배실	성 경 통 목 안	미주 토요일 오전 11:00
	통계 오후 7:00			

광주 광산구 수원로 11번길 47(영무대아름 2차 후문 수완 중 옆)
TEL : (062) 953-4620 H.P : 010-8665-5522

피종진 목사 2023년 4월 국내외 집회 일정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후 국제신학교(I.T.S) (이사장 강영준) 010-9260-1091
KC Enterprise Blessing

2(주) 저녁 공주 말복교회 (최종자 목사) 010-5353-7756
3(월) 저녁 서울 아바다교회 (정준자 목사) 010-3403-9190 영풍회 1배
4(화) 오전 한국 FUN 목회교회 (이종재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 영풍회 부흥사 연수원 (대표회장 배종신 목사) (032) 421-4560

6(목) 오후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교육관 주최: 한미연합부흥사업위원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7(금) 저녁 오산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오산시 문화회관
9(주) 새벽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신상철 목사) 010-7625-0747
김포 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부활절 연합예배
10(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둘노회 (노희정 신영로 목사) 정기노회
서울 동원교회 (예성열 목사)

10(월)~12(수) 광주 안디옥교회 (이장성 목사) 010-8441-0196
13(목) 저녁 성남 주영장교회 (전록만 목사) 010-2445-1691
주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개척) (대표회장장 남보석 목사)

16(주말) 제 229차 해외성회 (229th Overseas Assembly)
미국 (USA) 하와이 VISION 교회 (정형준 목사)

16(주말)~20(목) '제6회 세계여성지도자 하와이 컨퍼런스'
6th World Women Leaders Conference in Hawaii
장소: 미국 (USA)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및 GBS 하와이 방송 rostrum 현지교회
주최: 기독교성서문화연구원 최금숙 교수 발원인 대표 김희숙 목사
협찬: 미주 기독교방송 GBS 하와이 방송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공동대표회장 이기도 목사 최기석 목사)

23(주) 저녁 서울 영인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식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통영팔월루아교회 (02) 3673-1323~6

24(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7(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작은자 섬김성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28(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 3411-9191 Fax. 02) 401-7770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절박함에 직면한 기도

성경: 열왕기상 8장44-50절 찬송가 365장

세상을 살다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사방이 다 막혀도 기도할 수 있는 하늘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며 드린 기도의 마지막 인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쟁에 저 적국에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런 상황 때마다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의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임을 감지하셔서 기도 응답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

성경: 열왕기상 9장1-9절 찬송가 15장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백성들의 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게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리더들이 백성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받고 축복받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목: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성경: 열왕기상 10장1-10절 찬송가 563장

말씀보다 다른 일에 분주하면 말씀의 은혜는 단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다른 일들을 부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가 안정되면서 말씀보다 경영에 더 분주했고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서서히 말라 갔고, 이스라엘의 내부적 은혜도 점점 잃어가고, 스바 여왕을 통해 오히려 외부인에게만 은혜를 퍼주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세 중 하나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가까이지 많이 좋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철저히 잘 세우시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리스도인의 선택문제

성경: 열왕기상 12장1-11절 찬송가 425장

잘못된 것을 정리할 기회를 주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을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다윗의 원리를 택했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부흥의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르호보암이 다윗의 바른 통치로 돌아올 것인지 참고 기다리셨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공동체가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목: 결사적으로 기회를 붙들라

성경: 열왕기상 12장25-33 찬송가 353장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 때, 별불일 없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 왕가로부터 가장 멸시당하고 핍박받았던 공사 감독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은

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믿음에 서지 못하고 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5)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목: 도전하는 신앙

성경: 열왕기상 17장1-16절 찬송가 347장

보통 사람같으면 비가 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절대 회개하지 않기에 기갈의 아픔을 겪더라도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절대 비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미워스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이 들어도 혹시 살릴 가능성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제대로 수술을 받게 할 것입니다. 1) 비록 아픔을 겪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 2) 하나님이면 어떤 것도 가 능케 하신다는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리는 일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경: 열왕기상 18장30-40절 찬송가 348장

엘리야에게 불을 내린 기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주로 큰 능력이 나타나던 때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체험하려면 군대로 이야기 하면 후방에 있으면 안 되고 전쟁을 치루는 최전방으로 가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전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때 불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일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 작은 충성성이 큰 역사 없다

성경: 사사기 6장7-10절 찬송가 314장

사사기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름받은 무명의 선지자가 악역을 맡아 고군분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앞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 마치 주연 배우처럼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이 비록 주인공 기드온과 같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1) '무명의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2) '과연 주위에는 이처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약점을 지적해 주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이런 무명의 선지자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 응답받은 기도가 되려면

성경: 열왕기상 18장41-46절 찬송가 369장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바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한 것으로 보시고,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만 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위기 때 절대로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응답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와 더불어 작은 변화(응답의 징조)에도 믿음과 확신의 반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제목: 엘리야의 침체

성경: 열왕기상 19장1-7절 찬송가 370장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도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공갈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도망쳤고, 결국 광야의 한 나무 밑에서 침체되어 죽게 해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이 행세하지만, 그러나 일이 다 끝나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 환경의 변화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침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말씀 안에서 진정한 힘을 가지셔서 영육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예수님의 용기

성경: 요한복음 8장2-11절 찬송가 430장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려 없애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

상되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아셨음에도, 바른 삶을 위해 용기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2) 세상 사람들로부터 빠르게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일은 때로 조롱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목: 무엇이 이기게 하는가

성경: 열왕기상 20장1-15절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려고 한번 칼을 빼셨으면 치셔야 정상인데, 오히려 아람 군대를 치셨습니다. 왜 입니까? 열왕기상19장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도록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시고, 저야 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터져야 할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면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정기남 칼럼

약 5:13-16,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 하반절에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력이 있는리라" 아멘. 병든 사람은 생각을 복잡하게 갖지 말아야 한다. 약을 먹어도 이질 먹고 낫을까?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나?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볼까?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나? 생각이 복잡하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위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되 낫을까? 안 낫으면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 까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다. 말씀을 보시면 무어라고 하셨는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 하반절에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력이 있는리라' 아멘. 주 안에서 더욱 병든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받으시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욕(욨 2:4-8)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욕에게 질병을 가져다준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필자님 목사는 질병이 오랜 간절히 부르짖으며 맘을 훌쩍 쏟는 기도를 하고 나면 깨끗하게 치료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일어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욕을 보면 고통과 실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욕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기십시오. 성경을 찾아 보면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정기남 목사
편집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부활

예복교회
YEBOK PRESNYTERIAN CHURCCH

표어 :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사장
Citntv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
명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주일예배	대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3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예배		매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야기도회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기부문화를 통해 나눔의 행사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면서 어렵고 배고픈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데도 한 번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풍족하다며 임으로 시인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 선교를 향하여 큰 비전을 갖고 부름짓어 기도하는 인천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를 만나본다.

조강수 목사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며 강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산속에 들어가 울지 않정, 또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할 뿐 성도들 앞에서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며 보듬어 주면서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며 성도들의 믿음을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참석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돌아보며 나눔으로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목회자상을 실천하고 있는 조 목사를 바라본다.

아픔을 축복의 기회로 삼 나눔의 행사를 시작했다는 조강수 목사

한동안 인천 영광교회는 끝났다며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온갖 네거티브로 조강수 목사를 힘들게 했던 지난 7년의 세월, 게다가 조 목사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웠던 일들로 인하여 산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목회자를 초청 쌀 나눔 행사를 갖고 있다.

조 목사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어렵다고 내색하지 않고 지금껏 쌀과 라면으로 나눔 행사를 갖는가 하면 매주 200여 명의 목회자에게 10만 원의 선교비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 목사는 지금껏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고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선교에 힘쓰고 있다. 조 목사는 말한다. 목사가 자가용을 굴리는 비용을 절약하면 어렵게 사는 목회자를 그만큼 많이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조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 중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도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일하게 하신 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 봉헌 영광교회

-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눔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라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조강수 목사와 성도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기적의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

조강수 목사는 나눔의 행사를 가진 지 2년이 지나면서 지난 3월 둘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 불모지인 가좌동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약 1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하지만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그리고 경매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도 조 목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만 심정을 토하며 기도로 매달렸다. 마침내 지난 1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주셨고, 지난 3월 둘째 주간 농협으로부터 부채가 다 해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기적의 하나님은 조 목사에게 응답하기를 3월 24일(금) 오후 2시 봉헌 감사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해주셨다고 한다.

정말 기적의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살려 주셨고, 새 희망을 갖게 하셨다. 15억 원의 부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헌 감사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기적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시는 복된 봉헌 감사예배였다.

영광교회와 조강수 목사는 매일 500-600개 교회를 돕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조강수 목사는 어려운 이웃과 목회자를 도와야겠다는 신념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

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또는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힘써 기도한 결과였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회자들을 초청, 선교 후원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며 나눔으로 매주 쌀과 라면, 목회자 개인당 10만 원을 전달해 온 지 벌써 2년을 지나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20~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목회자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현재 매주 금요일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며 세미나를 통한 교육을 받는 목회자가 200~300명씩 늘어났고, 매일 500~600 교회를 돕고 있다.

영광교회 조 목사와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추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기적의 하나님은 영광교회와 조강수 목사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은행 융자 15억 원 이상을 갚을 길 없어 경매처분을 받고 눈물로 수많은 나날을 참아내며 기도해 왔다.

그러면서도 조강수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눔의 행사와 선교비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눔의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 강수 목사는 지금까지 약 650여 교회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목회자들에게는 상담 후 추첨을 통해 특별히 100만 원씩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월 24일 드려진 봉헌 예배는 성도들과 매주 금요일 2시 예배에 참석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조용히 드리기를 원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원근 각지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찾아와 주었고, 성전이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날 조강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신 신앙고백으로 봉헌 감사예배는 은혜가

넘쳐났다.

기적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배 순서에 어떤 경과보고도 없이 생략된 가운데, 오직 기적의 하나님께서 거금의 부채가 해결되었음을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날 조강수 목사의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신앙고백으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또한 조 목사는 큰일이 있을수록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 다 주님이 하셨다고 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만다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서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눈물과 아픔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고 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요, 승리라고 했다.

한편 조강수 목사와 영광교회는 쌀과 라면을 나누는 나눔의 행사와 선교비 지원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현재 10만 원을 100만 원씩 올려서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고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 목사는 국수를 대접하는 것보다 출장 뷔페로 대접할 것이며 다 나아가 영광교회와 조 목사는 세계 선교에 큰 비전을 갖고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의 표어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365일 기도하고 있다.

조강수 목사는 인사를 끝으로 기적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외치며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축 부활 인천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절 말씀)**



담임목사 : 조강수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동) 전화 : 032-577-1225